

觀光消費의 經濟的 效果에 대한 計量分析

高 南 旭

I

國際觀光이 一國의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實로 多大하다. 國際觀光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效果는 직접 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확실히 經濟的 측면에서 볼 때 이는 一般商品貿易과 하등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國際觀光을 가리켜 旅行貿易(Travel Trade) 또는 無形貿易(invisible trade)이라 稱하기도 한다.

一般的으로 開途國에서는 國際觀光消費(International tourism expenditure)가 自國의 經濟的 惡化를 解消시킬 수 있는 唯一한 經濟手段으로서 높이 評價되고 있다. 國際觀光客을 통한 外貨收入과 商品이 完全히 같고 觀光收入에 의한 最終的인 所得 雇傭의 誘發效果는 投資支出에 의한 效果와 同質인 것으로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그렇다면 觀光收入은 그 만큼의 投資支出로 看做하여 乘數的인 所得創出效果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開途國이 經濟開發政策의 기초를 農業 또는 工業發展에 들 경우 外貨 不足난의 解消策으로서 國際收支改善의 한 手段으로 觀光産業에 積極적인 態度를 취하게 된다.

이와같이 國際觀光이 開途國經濟의 政策目的 達成에 이바지 한다는 期待를 가지고 大部分의 開途國들이 觀光開發에 積極的 態度를 취하게 되는데 그 主要目的은 國民總生産物增加, 經濟開發에 必要한 外貨 획득, 雇傭增大, 政府收入의 증대 및 수입원의 다양화등에 그 目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觀光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測定하는 方法은 두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어떤 共通性, 예컨대 觀光에 의한 純粹한 富의 增加에 기준을 두고 이에 限定시키는 것이다.

피터(Michael Peters)는 그의 著書에서 觀光의 經濟的 影響은 既存經濟理論에 의하여 이를

1) 李芳雄, 國際觀光論, 1977, p.79.

2 는 문 집

計量化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人間活動의 經濟的 價値는 富와 關聯하여 人間活動의 寄與度로서 測定될 수 있다는 것이다.²⁾

말하자면 富의 價値는 現在의 消費價値로 評價될 수 있으며 消費의 增加는 相對的으로 所得의 增加이므로 觀光消費는 곧 個人所得의 增加로서 經濟的 富의 反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觀光客이 一國의 領域內에서 支出되는 消費性向이 높으면 높을 수록 觀光客 自身의 生活은 물론 그 나라 全体 國民의 經濟的 水準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消費性이 높은 이들 觀光客을 받아들이는 一國의 國民經濟는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觀光의 影響을 測定하는 第二方法은 既存 經濟理論으로 處理可能한 事項만의 分析에 限定시키지 않고 個人消費額의 증가에서 만이 아니라 經濟開發에 대한 投資面에서 分析되어야 한다. 觀光의 影響은 各國資產의 증가 및 構成, 雇傭의 증가 또는 觀光을 통해서 얻어지는 利益을 外部事情에 의해 強要된 成長狀態에서 탈락할 수 있는 可能性與否 등의 面에서 測定하는 것이 重要하다. 現今의 國際觀光需要와 觀光産業의 諸特性面에서 볼때 觀光開發은 經濟的 觀點에서 余他 産業開發에 못지 않게 重要하다. 따라서 이 分野의 投資面에서도 重工業과 同等한 投資價値를 가지므로 雇傭增大라는 面에서도 重要하다. 그러나 한편 開途國의 觀光開發은 先進國의 觀光消費者 내지 旅行斡旋業을 위해서 投資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投資의 本質은 보다 높은 收益성에 그 目的이 있는 것으로 이는 觀光開途國의 보다 많은 收入을 保障할 수 있다. 그러므로 經濟開發의 機會를 觀光發展에 두는 開途國은 開發資金의 調達과정에서 先進國에 지나치게 依存하는 傾向이 있어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 國民經濟의 安定을 强요당하는 경우도 있다.

以上の 諸問題와 關聯하여 國際觀光消費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計量經濟的 分析에 의하여 國際收支, 國民所得, 租稅增大 및 雇傭增大面에서 미치는 效果를 高찰하겠다.

2) Michael Peters, International Tourism, 1969, pp.241-242

Ⅱ

Ⅱ-1 國際收支改善

우리 나라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外援需給面에서의 構造的 特徵으로 인하여 慢性的인 赤字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最近 10여년間的 輸出伸張은 年平均 40%以上의 成長을 보여왔음에도 不拘하고 輸出로 因한 外貨의 收入보다는 輸入으로 支出하는 外貨가 더 많아 莫大한 經常去來上의 赤字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經常去來 赤字를 메꾸기 위하여 많은 借款을 들여와 資本去來 黑字로 外換保有高의 一定水準을 維持하는데 腐心해 왔으며 國產化施策의 促進, 輸入抑制, 外資導入抑制 등 綜合的인 國際收支改善策에 努力했던 것도 이러한 國際收支赤字幅을 메꾸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2년 하반기 부터 오랜 期間 慢性的으로 痼疾化 되었던 貿易赤字를 처음으로 經常去來黑字로 轉換되었고 資本去來面에서도 從來의 패턴을 變換시켜 왔다.

이러한 國濟收支의 反轉現象은 綜合的인 外換節約政策의 奏効, 貿易赤字의 縮少등의 原因도 있으나 觀光收入, 運輸, 保險收入등 貿易外收入이 크게 增加한 것이 가장 積極的인 理由라고 말 할 수 있다.

「表1」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經常收支中 貿易收支의 赤字幅을 메꾸어 온 것은 貿易外收支에서의 黑字이며 貿易外去來가 黑字를 나타낸 것도 主로 贈與, 政府去來 및 觀光등에서 淵由된 것이었다.

〈表 1〉 貿易外受給現況 (77年度) 單位：千佛

	海外旅行	運	保 險	投資利益	政府 來 ¹⁾	雜用役	贈 與	總 計
受 入	370,030	400,153	23,020	140,176	238,318	1,658,065	268,286	3,098,043
支 給	102,714	640,754	46,306	659,515	56,127	831,784	16,938	2,354,137
差 額	267,316	-240,601	-23,286	-519,339	182,191	826,281	251,348	743,906

註1) 受入項目에 請求權 資金에 의한 清算計定負債償還分包含
資料：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78.

그러나 오직 觀光만은 貿易, 貿易外 諸外貨受給事業 中에서도 唯一하게 黑字를 나타내어 可

〈表 2〉 主要貿易外 受入事業の 外換受給寄與度

年 度	海 外 旅 行			運 送			保 險			合計(B)	寄 與 度 (A/B)
	受 入	支 出	合計(A)	受 入	支 出	合計	受 入	支 出	合 計		
	單位：千佛										
1961	1,353	2,374	-1,021	1,167	5,919	-4,752	81	187	-106	-5,879	-17.4
62	3,092	2,166	926	1,451	11,717	-10,266	25	263	-211	-9,551	-9.7
63	2,726	2,276	450	2,606	0,694	-18,088	24	715	-691	-18,329	-2.5
64	2,786	2,381	408	4,315	22,144	-17,829	169	929	-760	-18,181	-2.2
65	7,724	1,662	6,062	4,336	23,312	-18,976	141	652	-652	-13,566	-44.7
66	16,186	3,193	12,993	5,639	20,215	-14,486	937	1,399	-460	-1,953	-665.3
67	16,316	8,936	7,920	10,076	33,202	-23,126	6,793	3,232	3,561	-11,645	-68.0
68	16,883	10,487	6,396	15,658	47,075	-54,543	5,346	4,670	676	-47,471	-13.5
69	16,233	10,964	5,269	23,139	46,011	-22,932	3,715	4,591	-876	-18,539	-28.4
70	18,719	12,424	6,295	36,654	42,376	-5,722	5,561	4,707	854	1,427	441.1
71	31,198	14,808	16,336	46,472	66,345	-19,874	6,030	8,176	-2,146	-5,634	-290.8
72	74,729	12,570	62,159	79,775	82,449	-2,724	3,656	9,711	-6,055	58,380	106.5
73	264,062	17,074	246,988	147,075	140,102	6,973	10,554	15,971	-5,417	248,544	99.4
74	153,326	27,618	125,708	227,217	245,185	-17,969	7,497	21,809	-14,312	93,428	134.6
75	147,628	30,709	116,919	264,664	316,637	-51,973	5,056	29,454	-24,398	40,548	288.3
76	275,010	45,234	228,776	311,220	463,052	-151,832	12,001	35,912	23,911	53,033	431.4
77	370,030	102,714	276,316	400,153	640,754	-240,601	23,020	46,306	-23,286	3,429	7,795.7
1961~77年平均											

註：非專業性 去來（投資，收益政府去來，雜用役，贈與）は 除外。
資料：經濟企劃院，韓國統計年鑑 1978.

〈表 3〉 國際收支審與度

單位：千佛

年度	貿易收支				貿易外收支				國際旅行收支				
	收入		支出		收入		支出		收入		支出		
	收	入	支	出	收	入	支	出	收	入	支	出	
差額(A)		差額(B)		經常去來差額(D)		差額(C)		C		B		D	
1961	42,901	100,591	-57,690	123,327	15,541	107,786	50,096	1,353	2,374	-1,021	-0.95	-2.04	
62	56,702	203,025	-146,323	122,318	29,962	92,356	-53,967	3,092	2,166	926	1.00	-1.72	
63	85,337	250,231	-164,894	91,817	39,403	52,414	-112,480	2,726	2,276	450	0.18	-0.40	
64	115,147	182,524	-67,377	97,102	38,605	58,497	-8,881	2,789	2,381	408	0.70	-4.59	
65	172,257	280,951	-108,694	125,763	38,499	87,264	-21,430	7,724	1,662	6,162	6.95	-28.29	
66	284,360	324,489	-76,129	238,434	44,726	193,708	117,579	16,186	3,173	12,993	6.71	11.05	
67	320,226	605,065	-284,839	375,199	89,358	285,841	1,002	16,316	8,396	7,920	2.77	790.42	
68	464,912	897,232	-432,320	424,500	127,808	296,692	-135,629	16,883	10,487	6,396	2.16	4.72	
69	604,904	966,988	-362,084	497,070	159,454	337,616	-24,468	16,233	10,964	5,269	1.56	-21.53	
70	815,949	1,154,611	-338,662	490,743	220,745	269,998	-88,664	18,719	12,424	6,295	2.33	-9.17	
71	1,036,772	1,380,005	-343,233	486,592	294,460	192,132	-151,101	31,193	14,808	16,385	8.53	-10.84	
72	1,580,043	1,510,879	69,164	579,157	348,591	230,566	161,402	74,729	12,570	62,159	26.9	38.5	
73	3,097,512	3,107,899	-10,387	932,324	483,165	453,159	442,772	264,062	17,074	246,988	54.5	55.8	
74	4,341,439	5,483,181	-1,141,742	987,325	477,963	212,357	-909,385	153,326	27,618	125,708	59.2	-13.5	
75	4,917,723	5,591,422	-673,699	991,965	1,038,328	-46,363	-720,362	147,628	30,709	116,919	-252.2	-16.2	
76	7,635,203	6,725,405	909,798	1,799,669	1,450,833	348,836	560,962	275,010	46,234	228,776	65.6	40.8	
77	10,119,156	8,791,251	1,327,905	3,098,043	2,354,077	748,945	593,959	370,030	102,714	267,316	35.9	45.8	
1961-77年平均												1.2	52.0

註 1) 무역의 수지에는 해외여행, 운수, 보험, 투자이익, 정부거래, 잠용액, 증여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KFX 자금에 의한 상품 및 기타거래에 따른 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적임.

資料：韓國銀行：經濟統計年報 1978

〈表4〉 韓國の國際觀光收入の比重

年 度	外 資 収 入			觀光收入(D)	比		
	貿 易(A)	貿 易 外(B)	經 常(C)		D/A	D/B	D/C
1961	42,901	123,327	166,228	1,353	3.15	1.10	0.81
62	56,702	122,318	179,020	4,632	8.17	3.79	2.59
63	85,337	91,817	177,154	5,212	6.11	5.68	2.94
64	115,147	97,102	212,249	15,704	13.64	16.17	7.40
65	172,257	125,763	298,017	20,798	12.07	16.54	6.90
66	248,360	238,434	486,794	32,494	13.08	13.63	6.68
67	320,226	375,199	695,425	33,817	10.56	9.01	4.86
68	464,912	424,500	889,412	35,454	7.63	8.35	3.99
69	604,904	497,070	1,101,674	32,809	5.42	6.60	2.98
70	815,949	490,743	1,306,692	46,772	5.73	9.53	3.58
71	1,036,772	486,592	1,523,364	52,383	5.05	10.77	3.44
72	1,580,043	579,156	2,159,199	83,011	5.25	14.33	3.84
73	3,097,512	936,324	4,033,836	269,434	8.70	28.78	6.68
74	4,341,439	987,325	5,328,764	158,571	3.65	0.16	2.98
75	4,917,723	991,965	5,909,688	140,627	2.86	14.18	2.38
76	7,635,203	1,799,669	9,434,872	275,011	3.60	15.28	2.91
77	10,119,156	3,098,043	13,217,199	370,030	3.66	11.94	2.80
1961~77年平均					7%	11%	4%

資料：經濟企劃院・韓國統計年鑑 交通部 交通白書 1977.

히 우리나라 外換去來의 赤字幅을 메우는 唯一한 黑字事業이 있던 것이며 1972年 以來 經常收支의 反轉에 先導的 役割을 擔當했던 것이다.

〈表2〉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같이 主要貿易外 外換受給事業(國際旅行, 保險, 運輸)中 觀光事業의 外換受給事情改善 寄與度는 1961年 以後 1977년까지의 7年間 年平均 480%이라는 높은 水準으로 매년 赤字幅을 줄이는데 功績해 왔으며 貿易外收支의 改善을 위해서도 같은 期間中 1.2%의 赤字減縮 기여율을 보여(表3 참조)

우리나라 貿易外收支가 黑字를 나타내게 하는데 積極적 方向으로 꾸준히 기여해 온 唯一한 單一事業이었던 것이다.

반면 이것을 外貨收入面에서 본다면 〈表4〉와 같이 1961年에서 1977년까지의 17年間 貿易收入의 平均 7%, 貿易外收入의 11%, 그리고 經常收入의 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例를 들어 國際的으로 觀光産業이 比較的 發展하였다고 볼 수 있는 各國의 1967年 經常收入中 觀光收入이 比重을 본다면³⁾ 오스트리아의 23.1%, 그리스의 14%, 이탈리아의 11%, 멕시코의 43.9%, 포르투갈의 20%로서 이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觀光産業은 外貨獲得面에서 대단한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II-2 國民所得增大効果

國際觀光客에 의한 外貨收入은 國民經濟內部的 所得源泉이기 때문에 消費性向에 따른 差異點은 있다고 하더라도 乘數倍와 所得效果를 創出하는 것이다.

이에 關한 實證的인 調査는 1958년부터 1960년에 걸쳐 美國商務省과 PATA(太平洋地域 觀光協會)가 共同으로 同協會의 17個 加盟國에 대한 觀光調査를 첵키(Checkki) 會社에 위촉하여 實施한 결과 그 報告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첵키會社는 一聯의 모델을 作成하여 所得의 移轉을 調査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즉 1) 地域內의 一定期間 동안에 있어서 觀光消費移轉은 經濟外的 與件에 따라 回轉速度가 다르며

2) 그리하여 回轉速度가 느린 나라(後進國)의 觀光消費金額은 年間 3.2回~3.5回 回轉함으로써 漏出하고 回轉速度가 빠른 나라(先進國)의 경우는 13~14回的 特殊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一般的으로 5~6回까지 回轉해야만이 漏出된다고 한다.

따라서 經濟事情如何에 關係없이 觀光收入의 所得乘數는 3.2~4.3以上에 달한다고 본다.

3) IUOTO.

8 논문집

이 調査에 의해서 觀光收入 1,000\$의 各企業에 있어서의 年間 回轉乘數를 算出해 본 結果는 다음<表5>와 같으며 收入의 品目別 消費比率도 同表에 提示된 바와 같다. 결국 1,000\$의 觀光收入은 所得의 回轉現象을 通하여 3.27倍의 乘數效果를 示顯하고 있다.

〈表 5〉 觀光收入 1,000弗의 用途別 年間回轉數

使用別	去來回數					延消費額	弗當年間回轉數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宿泊費	250	250	178.00	11.200	64.50	854.50	3.42
飲食費	320	320	211.00	137.00	63.50	1,051.50	3.28
土産品購入費	250	250	149.00	89.50	48.50	787.00	3.15
구경·娛樂費	100	100	70.50	41.00	25.00	336.50	3.365
地方交通費	50	50	29.00	16.50	7.50	153.00	3.6
其他	30	30	16.50	9.00	4.50	90.00	3.00
計	1,000	1,000	654.00	405.00	213.00	3,272.50	3.27
限界消費性向	—	—	0.6540	0.6192	0.5259	(0.6998)	8.33
追加取引回數 (6회-13회)						3,272.50	3.58
各用途總合 (去來13회)						3,483.60	

資料: Checcki: 報告書 (PATA)

이러한 消費의 乘數效果論은 經濟理論으로서 充分히 說明되고 있다.

乘數의 本質은 最初의 投資의 增加와 궁극적인 所得增加와의 相對的 크기를 比較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乘數란 投資의 增加分이 消費에 反應을 일으키고 그것이 다시 國民所得을 增加시킴으로서 投資의 增加分의 效果가 몇배로 增加 되었는가를 나타내어 주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國際觀光의 경우 이에 適用되는 乘數는 觀光消費의 增減과 國民所得의 增減의 크기를 말한다.

즉 이를 觀光의 所得乘數라고 한다.⁴⁾ 一般的으로 經濟가 安定된 均衡狀態에서는 貯蓄과 投資가 同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S=I$ 이다. 그러나 만약 "I"가 ΔI 만큼 증가하면 "S"도 이에 比例하여 같은 量으로 增加하게 될 것이므로 $\Delta I=\Delta S$ 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投資의 增加分인 ΔI 가 얼마후 一定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收入增加分인 ΔY 를

4) Michael peters, Ibid, p.235.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Delta Y = K\Delta I$ 가 될 것이다.

따라서 $1 < K < \infty$ 일때 常數 K 를 승수라 하며 이것이 곧 投資의 變化가 收入을 變化시키는 倍數로 나타내 주고 있다.

즉 觀光外貨收入은 商品輸出을 통한 外貨收入과 性格이 같고 또 封鎖體制上에서도 새로운 投資와 같은 效果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觀光收入이 國民經濟에 乘數的인 所得效果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Checcki 報告書의 調查結果를 Keynes의 投資乘數公式 $K = \frac{1}{1-C}$ 에 代入하여 檢討하여 보다 $K = \frac{1}{1 - \frac{\Delta C}{\Delta Y}}$ (K =所得乘數, ΔC =消費增加分, ΔY =所得增加分, $\frac{\Delta C}{\Delta Y}$ =限界消費性向)

이 公式은 어떤 經濟單位內的 限界消費性向($\frac{\Delta C}{\Delta Y}$)이 一定한 경우 一定額의 輸出은 K 倍(乘數)의 所得增加를 가져오며 觀光外貨收入 역시 새로운 輸出이 招來하는 것과 같은 規模의 所得效果를 파급시키므로 <表5>의 調查結果를 이 公式에 代入하여 計算하여 보면 $K = \frac{1}{1 - \frac{2272.5}{3272.5}} = 3.27$ 가 된다. 왜냐하면 위의 <表5>의 第1回 消費額 1,000\$은 外來觀光客

이 直接支出한 것이므로 國內經濟에서 볼 때는 所得으로만 計算한다.

그러므로 1~5회에 걸친 消費支出은 한편으로는 金額이 國內經濟 單位의 觀光收入이 될 수 있으나 그 經濟單位의 消費支出은 2回以後에 비로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上記 <表5>에서 第1回分은 觀光客 自身이 支拂한 돈으로서 觀光客이 購入한 物品代나 서비스代이다. 이는 觀光客에게 物品이나 서비스를 提供한 企業의 所得으로 되며 國內企業의 消費는 觀光客으로 부터 받은 돈으로 必要한 原料나 物品을 購入하거나 보다 下部的인 서비스를 導入할 때 비로서 이루어 진다. 즉 <表5>의 延消費額 3,272.5\$은 國內企業의 새로운 所得의 集計이며, 國內企業의 消費總額은 여기에서 外來觀光客이 直接支出한 最初의 1,000\$을 控除해야 한다. 觀光客이 支出한 이 最初의 1,000\$은 國內企業의 所得은 될 수 있으나 支出로는 計算될 수 없기 때문이다. 觀光客에 의한 1,000\$의 外貨支出은 결국 國內經濟單位의 3,272.5\$의 所得增加(ΔY)를 가져오고 2,272\$의 消費增加(ΔC)를 가져와서 이 經濟單位의 限界消費性向($\frac{\Delta C}{\Delta Y}$)은 $2,272.5/3,272.5 = 0.6844$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乘數 K 는

$$K = \frac{1}{1 - \frac{2,272.5}{3,272.5}} = 3.272 \text{가 된다.}$$

이 調査에 있어서 觀光客이 支出한 外貨消費中 1,000\$은 消費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限界저축性向 ($\frac{\Delta S}{\Delta Y}$)은 0.3076으로 나타났는데 이 限界貯蓄性向이 곧 觀光産業에서 消費의 漏出率 (Leakase rate)로서 이 漏出率(限界貯蓄性向)이 클수록 觀光消費의 波及效果 (乘數效果)는 적어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觀光消費의 回轉速度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물론 貨幣의 回轉速度가 빠르고 限界貯蓄性向의 적을수록 一定期間의 경우 乘數效果는 回轉速度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heccki 報告書의 觀光收入 回轉速度는 Keynes의 소위 貨幣의 所得速度를 말하는 것으로서 $V = \frac{Y}{M}$ 로 表示되고 있다.

예컨대 一定期間 社會의 貨幣所得의 授受되어 貨幣量 M가 몇번 流通되었다고 하며 이 流通回數를 V라 하여 그 社會의 貨幣所得 M를 MV와 같으며 이때의 流通回數 V를 貨幣의 所得速度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貨幣의 流通速度는 $MV = Y$, $V = \frac{Y}{M}$ 로 表示된다. 이때 貨幣의 所得速度는 經濟主体가 所得가운데 貨幣形態로 保有하려고 하는 比率 K의 逆數가 되는 것이다. 즉, 그 社會의 實質國民所得을 R, 價格水準을 P라고 한다면 $M = KPR$ 혹은 $M = VI = \frac{1}{V} = PR$ 따라서 $PR = Y$, $Y = MV$ 이므로 $V = \frac{1}{K}$ 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Checcki 報告書의 觀光所得의 回轉速度란 觀光收入이 지닌 屬性이 아니라 그 經濟社會가 지닌 共通의 屬性으로서 先進國일수록 빠르고 後進國은 느린 것으로 表現되고 있다. 따라서 同報告書가 先進國의 所得回轉速度가 빠르기 때문에 所得의 波及效果가 크다고 보는 것은 1年이란 限定된 期間만의 部分的 現象을 觀察한 結果일 뿐 全的으로 잘못된 見解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特히 注意할 점은 觀光收入의 波及規模를 決定하는 乘數 K의 크기는 全的으로 그 經濟社會의 消費慣行 다시말하면 限界消費性向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事實이다.

Checcki 報告書는 先進國과 後進國사이에 存在하는 限界消費性向의 差異를 무시하고 所得의 回轉速度가 곧 乘數效果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觀光消費의 回轉速度는 화폐의 所得速度와 같이 經濟外的 與件의 制約下에 있으며 先進國일수록 빠르며 前記調査에서도 先進國의 貨幣의 所得速度는 5, 6回 後進國은 3, 4回 程度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先進國은 限界消費性向이 낮으므로 觀光消費의 流通率이 높아 回轉速度가 빠른 대신 빨리 消費되고 全体的으로 보아 波及效果가 적고 乘數가 낮다. 그러나 後進國일수록 消費性向이 높기 때문에 비록 回轉速度는 느리다고 하나 流出率이 작고 乘數 K가 相對적으로 큰 數值를 나타내며 따라서 觀光消費의 波及效果가 그 만큼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觀光消費의 效果를 고리할 때 時間의 制約은 無意味하므로 先進國일수록 波及效果가 크고 後進國일수록 작다

는 一般的 見解는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그 反對라고 할 것이다.

要컨데 觀光外貸收入의 所得 效果를 決定하는 乘數의 크기는 그 經濟單位의 限界消費性向에 의해서 決定되지 貨幣의 流通速度 혹은 所得速度와는 無關하다는 것이다.

1961~1977年間的 우리나라의 平均 限界消費性向은 0.82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를 前記 公式에 代入하면 單純乘數 $K = \frac{1}{1-0.82} = 5.56$ 이 된다.

結局 우리나라의 外來觀光客에 의한 消費支出은 거의 5.56배에 達하는 乘數 效果를 波及시킨 結果가 理論的으로 나타난다. 다음 <表6>는 年度別 限界消費性向에 의한 觀光收入의 所得 乘數 效果를 計算한 것으로서 1961~1977年間 觀光收入의 乘數 效果가 차지하는 比重은 GNP의 平均 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77年 當該年度만도 GNP의 5.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6> 觀光收入의 所得 效果 (1) 單位: 千佛

年 度	觀光收入(A)	GNP(B)	乘 數(K)	승수효과(D)	D B	限界消費性向
1961	2,027	2,254,000	6.76	13,703	0.6	0.852
62	4,632	2,426,000	-8.40	-38,909	1.6	1.119
63	5,212	2,795,000	4.00	25,531	0.9	0.796
64	15,704	2,987,000	13.70	215,145	7.2	0.927
65	20,798	3,189,000	9.17	190,718	5.9	0.891
66	32,494	3,892,000	3.73	121,203	3.1	0.732
67	33,817	4,494,000	13.70	463,293	10.3	0.927
68	35,454	5,359,000	4.63	164,152	3.1	0.784
69	32,809	6,802,000	2.93	96,130	1.4	0.659
70	46,772	8,036,000	7.67	357,677	4.5	0.870
71	52,358	9,297,000	26.32	1,378,721	14.8	09.62
72	83,011	10,444,000	3.95	498,066	4.7	0.832
73	299,43	41,102,000	2.08	565,811	4.0	0.520
74	158,571	16,202,000	8.69	1,379,568	8.5	0.885
75	140,627	18,761,000	6.67	942,201	5.0	0.850
76	275,011	22,723,000	2.85	797,532	3.5	0.650
77	370,030	28,604,000	4.00	1,480,120	5.2	0.750

註 1) B는 1975년 가격기준 외화표시 Parity 가격임.

2) $K = \frac{1}{1 - \text{한계소비성향}}$

3) $D = A \times C$

4) D/B는 GNP액중 관광 수입으로 인한 소득증가분이 차지하는 比重임.

資料: 한국은행: 국민소득년보 1977

교통부: 교통백서 1978

12 는 문 집

以上の 고찰은 소위 封鎖體制(Closed Economy)의 乘數로서 保藏性向만이 乘數效果의 漏出으로 본 結果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 觀光産業은 輸出産業에 있어서 原資材購入등 一定한 輸入依存度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海外觀光宣傳費, 觀光客을 위한 各種外產品 및 호텔 기타 觀光施設에 必要한 外產資材輸入, 그리고 觀光施設에 所要된 導入外資의 元利金償還등 海外로 漏出되는 外貨支出도 相當하며 그 實際의인 規模는 調査된 資料가 없으나 觀光收入의 外貨稼得率이 約 92%로 一定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觀光收入의 約 8%가 보인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즉 外貨稼得率 R은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R = \frac{T - E}{T}$$

R : 外貨稼得率

T : 觀光外貨收入

E : 觀光費用支出(海外宣傳廣告費 + 外來觀光客을 위한 外產購入品の 輸入價格 + 施設資材導入費 + 導入外貨元利金償還)

그런데 위의 式에서

$$R = 1 - \frac{E}{T}$$

$$E = T(1 - R)$$

$$= T(1 - 0.92)$$

$$= 0.08 \times T$$

그러므로 觀光産業의 輸入依存度는 0.08로 언제나 一定하며 이 點 우리나라 輸出産業이 重要工業 原資材의 大部分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며 每年 輸入依存度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과는 對照的인 것으로 觀光産業의 가장 큰 特徵의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海外流出分을 감안할 때 當然히 前記 觀光收入이 波及시키는 乘數에 關한 公式은 다음과 같은 開發體制의 對外支出에 의한 所得의 漏出을 包括하는 公式으로 修正되어야 할 것이다.

$$\text{즉 } K = \frac{1}{1 - C + m}$$

K : 觀光收入의 所得乘數

C : 限界消費性向

m : 限界輸入性向

이 公式의 誘導과정은 다음과 같다.

觀光宣傳이나 觀光施設資材購入을 위해 對外的으로 支出된 外貨는 國內의 所得受領者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支出이며 觀光外貨收入은 國外로 부터 流入하여 國內의 所得을 形成하는 收入이며 이러한 對外收入은 누출로서의 對外支出을 상쇄하는 要因이 된다.

開發체제의 乘數는 이와같은 對外支出과 對外輸入을 導入한 乘數이며 이와같은 性質이 同一한 것이 外國貿易乘數이다.

이제 國民所得을 Y, 消費를 C, 國內投資를 I, 輸出을 M으로 表示하면 封鎖체제의 所得分析의 基本方程式 $Y=C+I$ 는 開發체제로 擴張되어 $Y=C+I+X-M$ 또는 $Y+M=C+I+X$ 로 表示된다. 여기에다 消費乘數 $C=C(Y)$ 및 輸入乘數 $M=M(Y)$ 를 代入하여 移項하면 $Y+M(Y)-C(Y)=I+X$ 가 되고 이를 微分하면 $\Delta Y+m\Delta Y-C\Delta Y=\Delta I+\Delta X$

$$\frac{\Delta Y}{\Delta I+\Delta X} = \frac{1}{1-C+m}$$

따라서 $\Delta Y = \frac{1}{1-C+m} (\Delta I+\Delta X)$ 의 公式 얻으며 觀光收入의 乘數效果를 高찰할러 할 때 投資量은 不要임을 前提로 하고 있으므로 ΔI (投資增加分)은 “0”이며 ΔX (輸出增加分)는 곧 觀光收入의 增加分을 意味하므로 所得의 增加量 = $\frac{1}{1-C+m} \times$ 觀光收入 이라는 結果가 되며 國內所得은 觀光外貨收入의 乘數 $K = \frac{1}{1-C+m}$ 倍의 增加를 가져온 셈이다.

특히 이 公式에서 m은 限界輸入性向으로서 한 單位의 國民所得增加分の 必要로 하는 原資材 혹은 原料商品의 輸入增加分(對外支出增加)을 의미하며 $\frac{\Delta M}{\Delta Y}$ 로 表示되는 것이지만 觀光産業에서는 前述한 바와같이 海外支出로서 海外宣傳廣告費, 外來觀光客購入品 및 그 原料의 輸入費, 施設資材導入費, 外資元利償還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支出規模는 다만 우리나라 觀光收入의 外貨稼得率이 一定하여 92%라는 것을 前提로 하면 每年 觀光收入의 8% 程度로 推定되며 따라서 우리나라 國際觀光産業의 輸入依存度를 0.08로 一定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輸入依存度는 輸入性向과 같고 長期的으로 볼때 이는 또한 限界輸入性向과도 일치한다. 이는 對外支出增加分을 所得增加分으로 나누어도 同一한 結果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所得의 漏出量中에는 貯蓄과 輸入뿐만 아니라 租稅가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租稅체제가 一定할 때 租稅收入은 所得의 增加函數이며 觀光客을

14 논 문 칩

通한 外貨收入이 增加하면 國內經濟體制內에서의 所得貯蓄 및 政府收入(租稅)은 增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消費는 所得에서 貯蓄과 租稅를 減한 나머지이며 所得의 漏出分은 限界租稅性向도 포함하게 되며 乘數 K는 限界租稅性向(mpt Marginal Propensity to taxation)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所得의 國內漏出分은 S(限界貯蓄性向)+mpt이며 國外漏出分은 m(限界輸入性向)이 되어 $1 - (S + m + mpt) = \bigcirc$ 이 된다.

$$\text{따라서 乘數 } K = \frac{1}{1 - C + m + mpt} = \frac{1}{S + m + mpt} \text{ 이 된다.}$$

- S : 限界貯蓄性向
- m : 限界輸入性向
- mpt : 限界租稅性向

따라서 위 修正된 乘數 K로서 앞의 <表6>의 內容을 修正하면 <表7>과 같으며 1961~1977年間的 우리나라 平均觀光外貨의 所得乘數는 3.12이고 國民所得에의 寄與率은 1.78%로 된다.

<表 7> 觀光收入의 所得效果 (Ⅱ)

年 度	觀光收入 (A)	GNP (G)	乘 數				乘數效果(E)	寄與度(D)
			S	m	mpt	T		
1961	2,027	2,254,000	0.148	0.08	0.096	3.09	6,263	0.2%
62	4,632	2,426,000	0.119	"	0.108	14.49	67,118	2.4
63	5,212	2,795,000	0.204	"	0.089	2.68	13,967	0.4
64	15,704	2,987,000	0.073	"	0.073	4.42	69,412	2.3
65	20,798	3,189,000	0.109	"	0.086	3.68	76,537	2.4
66	32,494	3,892,000	0.268	"	0.108	2.19	71,162	1.8
67	33,817	4,494,000	0.073	"	0.123	3.62	122,418	2.7
68	35,454	5,359,000	0.216	"	0.146	2.26	80,126	1.5
69	32,809	6,802,000	0.341	"	0.153	1.74	57,087	0.8
70	46,772	8,036,000	0.130	"	0.158	2.72	127,220	1.5
71	52,383	9,297,000	0.038	"	0.159	3.61	189,103	2.0
72	83,011	10,444,000	0.68	0.08	0.136	2.60	215,828	2.1
73	269,434	14,102,000	0.480	"	0.133	1.44	387,985	2.8
74	158,571	16,202,000	0.115	"	0.151	2.89	458,270	2.8
75	140,627	18,761,000	0.150	"	0.171	2.49	350,161	1.8
76	275,011	22,723,000	0.350	"	0.19	1.61	442,768	1.9
77	370,030	28,604,000	0.250	"	0.20	1.89	703,057	2.5

1961~77年平均

1.7%

註 1) GNP는 1975年 價格基準 外貨表示 Parity 價格임.

$$2) K = \frac{1}{S + m + mpt}$$

$$3) E = A \times K$$

$$4) D = \frac{E}{G} \times 100$$

資料：經濟企劃院：韓國經濟統計年鑑 1978 및 交通部：交通白書 1978.

따라서 <表6>에 의한 國民所得 寄與率이 <表7>에 의한 寄與率로 修正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 觀光産業의 國民所得寄與水準에 관한 高찰은 限界輸入性向의 지나친 斷定的假定에 의하고 限界輸入租稅性向 대신 平均租稅性向에 의한 점에서 어느정도 誤差를 豫想해야 하겠지만 Checcki報告書와 結果的으로 큰 乖離가 없는 數值이다.

Ⅱ-3 租稅收入의 增大

國際觀光客의 觀光消費는 各種稅目으로 國家에 莫大한 稅金을 納付하는 것은 여러가지 實證的 調査를 通하여 證明되고 있다.

前記 Checcki 調査에서도 租稅寄與度를 다음 公式에 의하여 推定하고 있다.

$$T = E \times 3.2 \times \frac{10}{100}$$

T : 稅金

E : 觀光收入

그러나 위 公式에서 3.2는 Checcki 調査團이 調査한 對象國中 主로 後進國地域에서의 觀光消費의 波及乘數이며 이 乘數數値는 是우리 나라에서도 3.12로 나타나는 바 거의 同一한 數値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 公式에서 3.2는 3.12로 修正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frac{10}{100}$ 은 租稅負擔率을 意味하여 17個 調査對象國의 觀光産業 平均租稅負擔率이 10%水準이란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961~1977年 사이의 17年間 全体經濟의 平均租稅負擔率은 13.4%이며 觀光産業은 3次産業인 社會間接分野로서 特히 그 歡待産業으로서의 特性으로 다른 産業에 비해 높은 稅率을 負擔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위와같은 劃一的 稅率의 適用은 적당하지 못하며 오

히려 觀光産業分野의 租稅負擔率은 平均租稅負擔率을 上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勿論 우리 나라에서도 觀光産業에 대한 稅制上的 支援體制가 마련 되어 있어 觀光호텔은 建設資材輸入時, 關稅 物品稅가 免除되며 其他業種도 外貨獲得額에 該當하는 營業稅 및 法人稅 감면 그리고 다른 稅目에 相當한 額의 租稅감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觀光産業全体的 租稅總額에 比較할 때 그 比重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問題에 關해서는 보다 具體的인 調査와 檢討가 必要할 것으로 본다.

$$T = E \times K \times mpt$$

T : 租稅

E : 觀光外貨收入

K : 乘數

mpt : 租稅負擔率

으로 修正 되어야 할 것이며 Checcki 報告書에 依하지 않더라도 $E \times K$ 는 觀光收入에 의한 所得增加分을 意味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平均租稅負擔率(限界租稅性向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正確함)을 곱하면 國際觀光産業分野에서의 租稅寄與水準을 測定할 수 있을 것이다.

<表8>는 1961~1977年의 17年間 觀光收入이 全体國民經濟에서의 租稅負擔率과 같은 比率로 租稅收入에 寄與했다고 判定하고 그 負擔額을 前記 修正된 公式에 代入하여 算出한 表이다. 이를 通하여 과거 17年 우리나라 租稅總額의 平均 약 2%를 觀光分野에서 寄與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觀光客을 通하여 流入된 外貨는 第1次的으로 限界租稅性向 만큼의 租稅를 納付할 것이며 所得의 回轉에 따라 所得增加分の 限界租稅性向倍만큼 租稅收入으로서 政府에 納付될 것이다.

Ⅱ-4 雇傭增大效果

觀光産業은 人間을 相對로 하여 歡待産業이라고 하는 그 固有의 特性으로 말미암아 觀光産業分野에서만은 機械化的 限界性을 內包하고 있다.

觀光産業은 勞動集約的인 産業일 뿐만 아니라 就業勞動의 形態로 보아서도 그 大部分이 供給과잉상태에 있는 未熟練내지 半熟練勞動을 비교적 많이 確保한다는 점에서 그 特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表 8〉 觀光外貨收入의 租稅效果

單位：千弗

年 度	觀光收入(E)	乘數(K)	租稅負擔率	租稅負擔額(A)	租稅總額(B)	A/B
1961	2,027	3.09	9.6	601	231,840	0.26
62	4,632	14.49	10.8	7,249	271,188	2.67
63	5,212	2.68	8.9	1,243	242,881	0.51
64	15,704	4.42	7.3	5,067	216,153	2.34
65	20,798	3.68	8.6	6,582	279,156	2.36
66	32,494	2.19	10.8	7,685	410,832	1.87
67	33,817	3.62	12.3	15,057	525,456	2.87
68	35,454	2.26	14.6	11,698	732,920	1.60
69	32,809	1.74	15.3	8,734	931,923	0.94
70	46,772	2.72	15.8	20,101	1,089,660	1.84
71	52,383	3.61	15.9	30,067	1,276,611	2.36
72	83,011	2.60	13.6	40,755	1,420,384	2.86
73	269,434	1.44	13.3	51,602	1,875,566	2.75
74	158,571	2.89	15.1	69,198	2,446,502	2.83
75	140,627	2.49	17.1	59,877	3,208,131	1.87
76	275,011	1.61	1.9	84,125	4,317,370	1.95
77	370,030	1.89	20.0	140,611	5,549,176	2.5
1961~77年平均			13.4			2%

註 1) 승수는 觀光收入의 所得乘數임

2) 租稅負擔額(A) = E × K × mpt

3) 租稅總額(B) = GNP × mpt

資料：한국은행, 국민소득 연보 1977 및 고등부 교통백서 1978.

近代의 産業構造는 産業技術의 進歩로 인한 生産性的 장기적 향상을 가져옴과 同時에 就業人口가 第1次産業에서 第2次産業으로 第2次産業에서 第3次産業으로 移動되고 있다. 이것은 社會의 發展이 消費經濟時代의 展開와 이에 따른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部門의 急速한 팽창을 가져온 다는 것을 意味한다.

觀光産業에 의한 雇傭效果는 호텔업, 旅行알선업, 觀光交通業, 土產品販賣業, 觀光索道業, 其他觀光施設 등 直接的인 「서비스」業에 의한 雇傭效果 以外에도 觀光業체에 財貨와 用役을 供給하는 部門으로서 건축, 農魚業 製造業部門에 있어서도 觀光部門에 의한 支出로 直接 또는 間接的인 혜택을 받게 되므로 經濟活動全般에 걸쳐 波及的 고용효과를 創造하는 特徵이 있다고 하겠다.

觀光産業은 勿論「서비스」産業으로서 一定한 雇傭效果를 創造하여 우리나라의 社會間接 資本 및 「서비스」分野의 雇傭量을 늘리고 總體的으로 産業發展과 經濟成長에 寄與해 왔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겠다.

이에 關해서 Checcki 報告書에서는 觀光收入의 54%가 人件費로 支出되어

그 雇傭效果는

$$EP = E \times \frac{54}{100} \times \frac{1}{W}$$

EP : 雇傭者數

W : 賃金

E : 觀光收入

으로 表示되고 있다.

즉, 觀光收入의 54%가 賃金으로 支拂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나라의 觀光收入中에서 支拂된 賃金總額을 平均賃金으로 나누어 주면 觀光收入이 가져오는 雇傭效果를 類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公式은 觀光收入의 第1次的인 雇傭效果 즉, 直接的인 效果만을 測定한 것이며 觀光收入이 波及시키는 第2次以後의 間接效果를 無視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前述한 바와같이 觀光收入은 乘數的인 所得效果를 가져오며 이러한 上昇된 所得은 租稅로서 政府收入으로 移轉되는 分을 除外하면 終局的으로 個人所得으로 歸着하게 되며 如何한 企業所得도 結局은 企業에 參加하고 있는 個人的 可處分所得을 形成한다.

따라서 觀光收入의 雇傭效果는 所得效果와 마찬가지로 乘數倍에 達하며 雇傭의 增加分은 所得增加分을 平均賃金水準으로 나눈 結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雇傭效果를 생각할 때의 所得은 可處分所得을 意味하기 때문에 雇傭效果를 測定하는 乘數는 그 漏出속에 限界租稅性向 및 限界輸入性向 등을 고려한 結合乘數(Compound Multiplier)일 것이 요망되며 이는 所得乘數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觀光收入의 雇傭效果는

$$KP = \frac{E}{W} \times \frac{1}{1 - C + m + mpt}$$

W : 서비스業 平均賃金

C : 限界消費性向

m : 限界輸入性向

觀光外貨收入의 履補效果

年度	觀光收入 千韓	限界消費 率	稅率	K	所得增加 千韓	稅率	實金水準	年間入蓄 實金	貨幣表示 年間實金	觀光産業 履補水準	履補總數 千名	比重 (%)
1961	2,027	0.852	0.08	0.096	6,263	131.8	4,358	52,296	398.90	157,490	6,446	2.0
62	4,632	1.119	〃	0.108	67,118	143.8	4,877	58,524	406.98	165,010	6,615	2.4
63	5,212	0.796	〃	0.089	13,969	174.8	5,385	64,620	369.67	38,016	7,947	0.4
64	15,704	0.927	〃	0.073	69,412	234.4	6,480	77,760	331.74	208,124	8,210	2.5
65	20,798	0.891	〃	0.086	76,537	252.5	8,221	98,652	390.70	196,806	8,522	2.3
66	32,494	0.732	〃	0.108	71,162	265.3	9,697	116,364	438.61	162,839	8,459	1.8
67	33,817	0.927	〃	0.123	122,418	282.6	12,672	152,064	538.08	226,281	8,914	2.5
68	35,454	0.784	〃	0.146	80,126	298.2	14,113	196,356	658.47	123,926	9,261	1.3
69	32,809	0.659	〃	0.153	57,087	306.0	17,410	208,920	682.74	81,661	9,347	0.8
70	46,772	0.870	〃	0.158	127,220	322.2	20,658	248,220	770.39	164,003	9,574	1.7
71	52,333	0.962	〃	0.159	189,103	339.0	31,385	376,620	1,110.97	169,736	10,066	1.6
72	83,011	0.832	〃	0.136	215,828	369.6	35,540	426,490	1,154.20	187,025	10,559	1.8
73	269,434	0.520	〃	0.133	387,985	349.5	37,020	444,240	1,271.07	296,779	11,139	2.7
74	158,571	0.885	〃	0.151	459,270	418.4	47,183	565,196	1,353.24	339,877	11,586	2.9
75	140,627	0.850	〃	0.171	249,350	484.0	66,888	802,656	1,658.38	212,042	11,830	1.8
76	275,011	0.650	〃	0.190	442,768	534.4	98,380	1,180,560	2,209.13	199,192	12,556	1.6
77	370,030	0.750	〃	0.200	703,057	532.8	131,345	1,576,140	2,958.22	237,680	12,926	1.8
1961~77年平均												1.8%

資料: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77

한국은행, 국민소득연보 1977

교통부: 교통백서 1977

註: 임금수준은 社會間接資本部分 및 「서비스」業 기준임

mpt : 限界租稅性向

E : 觀光收入

以上の事項을 고려한 뒤의 觀光外貨收入이 가져다 주는 雇傭效果와 그것이 우리나라 雇傭總量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고찰하면 <表9>와 같다.

年間賃金水準을 Parity換率에 따라 이를 弗貨表示로 고쳐 이로서 觀光收入으로 인한 所得增加額을 除한 結果 外貨收入으로 인한 雇傭波及效果가 測定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觀光産業分野에서 占有하는 雇傭量은 全体雇傭量의 平均 1.8%로 나타나 觀光外貨收入이 GNP에서 占有하는 比率 1.7%와 비슷한 水準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所得寄與率이 0.1%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 最近에와서 우리나라 國際觀光産業 및 關聯分野의 就業者 혹은 從業員이 相對的으로 많아졌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본다.

II

國際觀光客의 消費行爲結果로 말미암아 相對的으로 發生하는 觀光輸出國의 外貨收入은 同 受惠國 經濟에 큰 效果를 나타낸다. 그것은 國際觀光의 純收入이 觀光事業과 關聯産業의 生産要素에 配分되는 所得을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創出하게 되므로 觀光의 直接所得者로부터 發生하는 間接所得은 다시 他人의 所得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다음의 또다른 個人의 所得으로 轉換될때 最終所得者의 所得增加額은 觀光受容國內에서 商品 其他 서비스의 代金으로 支拂하는 額數가 當初보다 倍로 增加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所得乘數(Income Multiplier)라 하며 이 所得乘數의 效果는 外來觀光客의 消費支出과 그로 인한 相對的 價値의 크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外來觀光客 誘致를 통한 外貨收入은 一國의 國民經濟가 外部로부터 새로운 所得을 創造하는 것이므로 消費性向에 따른 差異는 있을지 모르나 이들 國際觀光客에 의한 觀光消費는 분명히 乘數效果를 가져다 준다.

따라서 이와같은 諸問題와 關聯하여 國際觀光消費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巨視的 計量分析에 의하여 國際收支, 國民所得, 租稅增大 및 雇傭增大面에서 그것의 效果를 考察하였다.

國際觀光收入이 國際收支를 改善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寄與度를 보면 1961年以後 1977년까지의 71年間 年平均 480%라는 높은 水準으로 每年 赤字幅을 줄이는데 공헌해 왔으며 貿易外

收支의 改善을 위해서도 같은 期間中 1.2%의 赤字減縮寄與率을 보여 貿易外收支가 黑字를 나타내게 하는데 寄與해 오고 있다.

外貨收入面에서 본다면 同期間동안 貿易收入의 平均 7%, 貿易外收入의 11% 그리고 經常收入의 4%를 차지하고 있다.

國民所得增大 效果面에서는 1961~1977年間 觀光外貨의 所得乘數는 3.12이고 國民所得에의 寄與率은 1.78%로 나타나고 있다. 觀光産業의 國民所得寄與水準에 관한 高찰은 限界收入性向의 지나친 斷定的假定에 의하고 限界租稅性向 대신 平均租稅性向에 의한 점에서 어느정도 誤差를 豫想해야 하겠지만 Checcki 報告書와 結果的으로 큰 乖離가 없는 數值로 나타나고 있다.

租稅收入의 增大面에서도 보면 國際觀光客의 觀光消費는 各種稅目으로 國家에 稅金을 納付하는 것은 實證的調查를 通하여 證明되고 있다.

觀光産業은 3次産業인 社會間接分野로서 特히 그 歡待産業으로서의 特性으로 다른 産業에 비해 높은 稅率을 負擔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위와같은 劃一的稅率의 適用은 적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觀光産業分野의 租稅負擔率은 平均租稅負擔率을 上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觀光收入이 全体國民經濟에서의 租稅負擔率과 같은 比率로 租稅收入에 寄與했다고 假定하고 그 負擔額을 算出하여 보면 과거 17年間 우리나라 租稅總額의 平均 약 2%를 觀光分野에서 寄與해 왔음을 알 수 있다.

觀光收入은 第1次的으로 限界租稅性向 만큼의 租稅를 納付할 것이며 所得의 回轉에 따라 所得增加分の 限界租稅性向倍만큼 租稅收入으로서 政府에 納付될 것이다

雇傭創出效果를 보면 觀光産業은 「서비스」 生産으로서 一定한 雇傭效果를 創出하여 우리나라의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分野의 雇傭量을 늘리고 總體的으로 産業發展과 經濟成長에 寄與해 왔다. 觀光收入의 雇傭效果는 所得效果와 마찬가지로 乘數倍에 만큼 雇傭을 增大 시킨다.

따라서 觀光産業分野에서 点有하는 雇傭量은 同期間中 우리나라 全体雇傭量의 平均 1.8%를 点有하고 있어 觀光外貨收入이 GNP에서 点하는 比率 1.7%와 비슷한 水準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最近에 觀光産業 및 關聯分野의 就業者 혹은 從業員이 相對的으로 많아졌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본다.

— Summary —

The Economic Effects of Tourism Expenditures

Ko Nam-wook

I

In considering the economic impact of expenditures by foreign tourists, there are four factors which need to be assessed :

1. What is the effect on the balance of payment ?
2. What is the effect on national income ?
3. What revenues would accrue to the government through taxation ?
4. What is the effect on jobs and wages ?

The activities comprising the tourist industry are so divers that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assess the economic impact of tourism. International tourism has become the largest single item in foreign trade.

For some countries tourism already represents a major export industry and earner of foreign exchange.

For others it constitutes a possible source of future economic expansion,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now recognised. For certain countries a major opportunity for stimulating investment and of earning foreign exchange and creating employment. Receipts from international tourism are of vital significance to economic development.

II

The money spent by tourist becomes income in the hands of the local population in some form or other and is, again, respent or saved. Thus the money originally spent by tourists may be spent many times, each time giving rise to a certain amount of "Leakage" either for the purchases of imports or for saving, until the effects of the original expenditures become negligible.

This constitutes what is known as the "multiplier" effect. Nevertheless, it can be said at this stage that expenditures by tourists can have beneficial effects on all economic sectors and lead to considerable diversification of industries and other economic activities.

Tourism, in future, could help to correct the balance of payments deficit of many countries. Tourism is a service industry and coul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To this service industry, human labour will always be extremely important. Demand for tourism service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nd this will influenc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consumer goods indus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III

To sum up, the tourist consumer goods and services in those countries be choose to visit, which will become income to persons in the best country. This will, again, be spent to purchase goods and services. It is, therefore, of considerable interest to consider the multiplying effect of the original expenditures and the net effects on income, employment, and balance of payments.